

그래도 살아야 했다

이은상*



저자: 왕용진(王永晉)

번역: 송승석

감수: 왕칭더(王淸德)

출판사: 학고방

출판연도: 2017

분량: 408쪽

I. ‘사적 기록’이 ‘공적 자료’로

인천대 중국학술원 HK중국관행연구사업단은 2012년부터 『중국관행총서』를 기획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성과를 생산하고 있다. 그 중 화교 관련 자료총서로 『인천에 잠든 중국인들 -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05),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 -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06) 등은 인천대 중국학술원이 인천화교협회와 조사업무 협약을

* 李殷祥, 부산대 교양교육원 교수.

e-mail: eunha@pusan.ac.kr

맺고, 협회 내 소장되어 있던 화교 관련 미공개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전산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성과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려는 자료총서 『그래도 살아야 했다』(08)는 앞의 2건의 총서와 약간 결이 다르다. 서평자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자료의 극적인 성격 때문이다. 이 책의 번역자 송승석 교수는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학교, 화교협회 소장 자료 발굴 등 인천 화교 연구로 잘 알려진 학자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인천화교학교 교사였던 왕칭더(王清德)와 내왕하고 있었다. 왕칭더는 사망한 부친 왕용진(王永晉)이 작성한 회고록 원고를 소장하고 있었다. 원고의 표지에는 “비참한 기억”(悲慘回憶)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왕용진은 1905년 중국 산둥 룡청현(榮成縣)에서 태어나 2006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100세를 채우고 사망하였다. 아들 왕칭더는 우연히 송승석 교수에게 부친의 회고록을 보여준 적이 있었지만, 송승석 교수가 이 회고록을 출간하자고 제안했을 때 누가 보겠냐고 하면서 주저하였다.

송승석 교수는 그 다음번에는 동료 이정희 교수를 대동하였다. 이정희 교수는 동아시아 화교 연구의 전문가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타이완 국사관(國史館) 소장 자료에서 왕용진에 관한 기록을 찾아내 보여주었다. 왕칭더는 부친이 생전에 중화민국 외교부에서 근무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고자 애썼으나 이루지 못했음을 한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왕용진은 자신의 이력을 입증하지 못했으나 전문 연구자가 이를 찾아낸 것이다. 이로써 캄캄한 서랍 속에 처박힌 채 있었던 ‘사적 기록’은 ‘공적 자료’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은 자신의 ‘비참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왕용진, 인천화교협회, 화교학교 및 그 관계자들과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송승석 교수, 공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준 이정희 교수 등의 노력으로 일궈낸 산물이다. 아버지의 유산을 간직하면서 기다렸던 왕칭더는 아버지

의 소원을 이뤄드린 셈이다. 서평자는 왕용진의 사적 기록을 공적 자료로 ‘발굴’한 송승석 교수의 탁월한 식견을 높이 사고 싶다.

II. 왕용진은 누구인가(1) : 중화민국에서 식민지 조선으로

왕용진은 회고록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였다. 1905년 산둥 룡청현에서 태어나 1932년 중화민국 외교부에 입사하였다. 조선에 파견되어 첫 해외 근무를 시작하게 된 시점은 1937년이다. 경성총영사관 근무를 거쳐 원산부영사관에서 부영사 업무를 맡아보았다(이 책에서는 원산영사관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원산에는 부영사관이 설치되었다). 원산 부영사로 재직하던 중 일본의 무조건 항복 소식을 들었다. 한반도 북부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였는데 중국공산당 참가를 거부하자 체포되어 소련의 하바롭스크에 있는 전범수용소로 압송되었다. 원산에서 소련에 체포될 당시 부인과 4명의 자녀는 영사관내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1950년 중국공산당에 인계되어 동베이(東北) 푸순(撫順)에 있는 전범수용소로 이감되었다가 1957년 석방되었다. 1958년 해상으로 한국을 거쳐 타이완으로 갈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계획은 실패하였고 다시 체포되어 무기징역(1966년에 징역 18년으로 감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되었다. 1975년 국민당 전범에 대한 특사 조치로 석방되었다(이 책에서는 1977년 석방되었다고 기재되어있는데, 본문의 내용과 부록에 있는 자료2, 자료3에 따르면 왕용진이 석방된 시점은 1975년 12월이다).

얼마 후 일본을 거쳐 생사를 묻는 아들 왕칭더의 편지를 받을 수 있었다. 왕칭더는 왕용진이 소련군에게 체포될 당시 임신 중이었던 부인에게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었다. 가족과는 30년 만에 연락이 닿았다. 1980년 왕용진

은 숙원이었던 타이완으로 가게 되었다. 회고록 서문은 그가 타이완으로 이주한 1980년에 쓴 것으로 보인다.

왕칭더는 타이완에서 처음으로 부친을 만났다. 36년 만의 부자 상봉이었다. 왕용진은 가족의 권유로 2003년 말 한국으로 돌아와 3년 뒤 2006년 10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이 책은 전체 5부로 이루어졌는데 각 부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제1. 난징(南京)국민정부 외교부 시절
- 제2. 조선영사관 시절
- 제3. 소련 전범수용소 시절
- 제4. 중국으로의 귀환
- 제5. 가족의 품으로

제1부는 1931년부터 1936년까지 왕용진이 난징국민정부 외교부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눈에 띈다. 우선, 그가 외교부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에 관한 것이다. 그는 9·18 만주사변 당시 다롄(大連)의 야마토(大和)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조차지가 있던 다롄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전리품으로 넘어갔다. 러시아가 운영한 다롄에서 창춘(長春)까지 동청철도는 남만주철도로 개조되고 이 남만주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국책 회사로 만철이 만들어졌다. 야마토 호텔은 만철에서 운영하였다. 다롄의 야마토 호텔은 일본 관동군 뿐 아니라 청의 마지막 황제 푸이, 청말 정객 등의 회합 장소로 정보가 모이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만주사변 이후 중국 측의 제소로 국제연맹은 영국인 리튼을 대표로 하는 국제조사단을 만주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다롄의 야마토 호텔에 묵었다. 중국대표단 단장은 ‘중화민국 최고의 외교관’으로 알려진 구웨이쥔(顧

維鈞)이었다. 왕용진은 아마도 호텔에서 구웨이권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호텔에 근무하면서 모아둔 일본의 만주 침략에 관한 자료를 중국대표단 측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구사일생’으로 다렌을 탈출하여 난징으로 오게 되었다. 난징에서 그는 구웨이권의 소개로 1932년 8월 초 외교부 총무사(總務司) 소속의 문서과(文書科, 이 책에서는 서무과라고 했지만 원래의 조직 명칭은 문서과이다)에서 문건 수발 등을 담당하는 서기로 일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후에 경성총영사로 부임하는 판한성(范漢生)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왕용진은 외교부에서 근무한 지 2년 째 되는 1933년 당시 정보사 제4과(이 책에서는 제6과라고 했지만 없는 부서이다. 정보사는 제1과에서 제4과로 편제되었고, 판한성은 대일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제4과 소속이었다) 과장 판한성과 서무과 직원의 추천으로 중국국민당에 입당하였다. 판한성은 1934년 10월 주경성총영사관의 총영사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인연 때문이었는지 왕용진은 1937년 3월 초 판한성이 총영사로 있는 경성총영사관으로 파견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제2부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영사관 시절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한 부분은 우선, 경성총영사관 오색기 ‘환기’(換旗) 사건에 관한 것이다. 왕용진이 경성총영사관에 파견된지 얼마 되지 않아 중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판한성 총영사가 ‘친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영사관 최대의 위기’ 곧, 환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왕용진에 따르면, 판한성은 ‘친일파’로 난징이 함락된 다음 날 ‘반공’과 ‘중일 친선’을 내세우면서 베이핑에서 왕커민(王克敏)이 주도한 친일 중화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총영사관에 걸려있는 난징 국민정부의 청천백일기를 임시정부의 오색기로 바꾸어 게양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왕용진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원은 강한 저항을 하다가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체포된 관원 중 끝까지 반대한 부영사 수위쥬(蘇馭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임시정부 참여를 거부하지 못했다. 이미 경성총영사관은 일본 헌병경찰의 감시 하에 있었고, 업무는 거의 마비되었다. 운영비와 월급은 지급되지 못했고 총영사관을 관할하는 도쿄 주일대사관의 지침은 명확하지 않았다. 관원들은 귀국하려 해도 여비가 없었으며, 중국 본토는 일본군 아니면 팔로군의 점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제스의 국민정부 수도인 충칭(重慶)에 간다고 해도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귀국하지 않은 화교들의 안전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시 친일 임시정부를 거부하고 귀국한 영사관원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총영사관 부영사 수위쥬, 신의주영사 진주후이(金祖惠) 등은 일본의 나가사키를 통해 귀국하여 상하이로 갔지만 충칭의 국민정부에 합류하지 못하고 “원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월급은 절반만 받는다”는 국민정부의 대책을 수용하였다. 왕징웨이 친일 국민정부가 상하이조계를 접수한 이후에는 이 대우마저도 중지되었다. 판한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관원과 가족을 데리고 귀국한 신의주영사 진주후이는 결국 왕징웨이 정부에 참여하였다(이은상, 2018, 243).

다음으로, ‘환기’ 사건 이후 친일 임시정부 소속임을 선언한 영사관의 상황에 관한 것이다.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주일대사관, 주조선총영사관의 철수와 귀국을 명령했지만 친일 선언 이후 영사관 업무는 원상 복구되었다. 영사관원에 대한 인사이동도 단행되었다. 왕용진은 ‘인천판사처’(이 책에서는 인천영사관이라고 하였으나 인천영사관은 1930년 6월 주조선총영사관에 속한 판사처로 개조되었다) 주임으로 파견된 뒤 1년 여 뒤 다시 총영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1940년 일본과 화평을 선언한 왕징웨이가 난징에 친일 국민정부를 수립하면서 베이핑 임시정부는 해산되었다. 영사관에는 다시 왕징웨이 정부의

국기인 청천백일기가 내걸렸다. 영사관원과 교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영사관을 왕래할 수 있었다. 전쟁으로 귀국했던 교민들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교민 관련 안건이 빈번해졌다. 1941년 말 판한성이 일본 요코하마 총영사로 전임하고 타이완 출신으로 린위경(林宇耕)이 부임한 뒤 왕용진은 잠시 부산영사관 수습영사로 근무하다가, 진남포판사처 부영사로 파견되었고, 이어 원산부영사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이 책에 따르면 왕용진은 인천판사처 주임, 총영사관 주사, 부산영사관 수습영사, 진남포판사처 부영사를 거쳐 원산부영사로 재직하였다. 이 중 인천판사처 주임, 총영사관 주사, 원산부영사 왕용진의 이름은 국가기록원, 타이완 국사관 등에 소장된 영사관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하다(이정희, 2018, 189-190). 다만 부산영사관 수습영사, 진남포판사처 부영사의 직함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왕용진은 원산에서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소식을 들었다. 38선 이북에는 김일성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영사관 3곳 - 원산, 진남포, 신의주 - 은 폐쇄되었고 관원은 소련군에 체포되었다.

제3부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소련 전범수용소 시절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평자가 주목한 부분은 영사관의 폐쇄와 영사관원의 처분에 관한 것이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38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은 1945년 12월 영사관을 포위한 뒤 물품을 압수하고 관원을 체포하였다. 이들은 왕용진을 비롯한 관원을 끌고 기차로 평양역에 도착한 뒤 법원 회의실로 압송하였다. 왕용진은 여기서 신의주영사와 수습영사 그리고 진남포판사처 수습영사 양사오취안(楊紹權) 등을 만났다. 얼마 뒤 왕용진 일행은 하바롭스크 제45호 전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 수용소에는 만주국 '황제' 푸이와 친인척들 그리고 만주국 관리들도 있었다. '국민당의 패주'로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새로운 중국이 탄생하자 이들은 중국으로 인계되었다.

Ⅲ. 왕용진은 누구인가(2): 중화인민공화국 이후

제4부는 중국으로 인계된 1950년부터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1975년까지의 생애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1950년부터 7년의 수감 생활을 거쳐 1957년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부터 검토해보자. 푸이 일행과 같이 왕용진은 만주 푸순(撫順)에 있는 전범수용소에서 노동교화를 받았다. 이들은 ‘과거 인민의 적’이자 ‘반동분자’이므로 교육과 학습을 통해 반동사상을 개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다. 왕용진은 ‘자아비판’에서 “난징국 민정부 외교부에서 일을 시작한 것부터 소련군에 붙잡혀 5년간 소련에 억류되어 있다가 중국공산당에 인계되어 돌아오기까지 일련의 정황을 낱낱이 적어 제출했다”(왕용진, 258). 공산당의 논리에 따르면 왕용진은 ‘중국 국민당을 위해 일을 한 사람’이므로 중국 인민의 적이었다.

흥미로운 부분은 공산당 측이, 중일전쟁 이후 친일 임시정부 휘하의 영사관에서 근무한 그의 ‘친일’ 경력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까지는 주조선영사관의 중일전쟁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 아닐까.

1957년 12월 말 베이징 최고인민감찰원은 “7년 동안 사상개조에 힘써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여 왕용진 등에게 관용을 베풀어 석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을 떠난 지 첫 번째 귀향이었다. 빈털터리 신세였다. 부모의 무덤은 공산당에 의해 파헤쳐지고 유골은 찾을 수조차 없었다.

다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뒤 1958년 밀항을 계획하다가 체포되어 다시 수감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발해를 건너 한국의 인천으로 밀항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타이완의 국민당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밀항 계획은 너무나 허무하게 실패하였다. 어부로 일하는 친척과 의논하여 배를 구

하러 했으나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그가 롱칭현 감옥에 수감된 1958년은 대약진의 후과로 아사지경의 이른바 ‘고난의 3년’이 시작되던 때였다. 감옥에서는 죽어 나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 영양실조였다.

왕용진은 ‘반혁명분자’로 분류되었다. 검찰관의 기소장은 대략 이러하였다. “왕용진은 국민당 반동정권의 외교부에서 재직하였고 1937년부터는 반동정부 주조선영사관에서 다년간 근무하다가 소련에서 수행생활을 거쳐 조국으로 압송된 바 있다.” “7년간 인도주의 사상을 교육함으로써 사상개조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국민당 반동파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국경을 넘어 탈출을 시도했다… 이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을 배반하고 적에게 투항해 부귀영화를 도모한 것이다”(왕용진. 322).

또 다른 검찰관이 국경을 넘어 탈출하려는 목적을 묻자, 그는 가족을 찾아 타이완으로 갈 생각이었다고 대답했다. 자신은 국민당 당원이므로 타이완으로 가는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번에 검찰관은 국민당을 배반하고 왕징웨이 정권에 투항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왕용진의 논리는 이러하였다. “당시는 전국이 항일전쟁 중이었고 우리는 적국의 수중에서 적들의 총칼 아래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 당시 총영사 매국노 판한성의 지시에 잠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항전에서 승리하게 되면 국민당에게 죄를 자인하고 처벌을 요청할 생각이었다”(왕용진. 323).

앞서 전범수용소 시절 공산당은 왕용진의 친일 부분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그 부분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국민당 반동분자’라는 꼬리표가 바뀌지는 않았다. ‘밀입국에 따른 반혁명죄’를 이유로 왕용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제5부는 1975년 말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이후의 생애에 관한 내용이다. 문화대혁명이 거의 끝나갈 무렵 1975년 12월 거물급 국민당 장성 두위밍(杜聿明) 등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들 중

타이완에 가족이 있는 사람은 이주해도 좋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졌다. 그러나 ‘반동파 국민당’은 이들이 국민당 전범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이들의 입경을 불허하였다. 이들은 타이완으로 먼저 가지 않고 공산당과 끝까지 맞서 싸운 노병들 아닌가. 그 중 한 명은 어쩔수 없이 미국으로 갔고 한 명은 국민당 특수요원에 의해 살해되었다. 결국 나머지 장성들은 베이징으로 귀환했고 공산당은 이들을 정치협상회의 의원으로 위촉했다. 타이완에서 왕용진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를 알 수 있는 전조였다.

왕용진은 석방 이후 고향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산둥 웨이팡시(濰坊市) 초대소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여기에서 왕칭더가 부친을 찾기 위해 일본을 통해 고향마을 촌 지부 서기에게 보낸 편지를 받을 수 있었다. 얼마 안 가서 타이완에 있는 둘째 딸과도 연락이 닿았다. 왕용진은 가족의 도움으로 홍콩을 경유하여 타이완에서 가족을 상봉할 수 있었다.

고향에 귀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타이완에 도착했을 때도 그는 빈털터리였다. 타이완에서 보낸 14년 동안 국민당 정부는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왕용진은 국민정부 외교부 근무 경력을 계속해서 확인하려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가 지니고 있던 옛날 위임장이나 관련 문서는 전부 소련군에 의해 빼앗겼고 부인이 월남하면서 가지고 있던 외교부 시절 사진 하나가 전부였지만 근거 자료로 인정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지만 노부부는 자식에 의지해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아들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원산에 남아있던 가족은 어떻게 남하할 수 있었을까. 왕용진 아내의 기억은 이러하였다. “당시 소련군이 원산에 들어오면서 집안의 현금, 귀중품을 모두 약탈해갔다. 영사관의 물품도 온전히 남은 게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아는 부인의 도움으로 아들 왕칭더를 낳고 1년을 살았다. 1947년 몇몇 사람들과 한성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했다. 어린 젖먹이 아들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은 일단 기차로 해주에 가서 강을 건너 한성으로 가는 기차를

겨우 탈 수 있었다. 한성에서 근근이 살아가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스무닷새를 걸어서. 부산영사관은 피난민수용소가 되었다. 이후 부산 영주동 11번지에 모여살았다. 마을 이름은 ‘충효촌’(忠孝村)이었다. 현재 자녀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2명은 타이완에 2명은 한국에 거주하였다”(왕용진. 389-392).

이 책에서는 남은 가족이 부산에서 거주하게 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계속 부산에 거주한 것인지, 다시 인천으로 이주한 것인지, 타이완에는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왕용진의 남은 가족사는 1945년 이후 소수자로서 한국화교의 고단한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IV. 동아시아 디아스포라: 20세기를 ‘살아낸’ 사람들

이 책에서 서평자의 주된 관심은 주조선영사관원으로서 왕용진이다.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전쟁이 발발하자 주조선영사관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주조선영사관은 왕커민의 베이핑 임시정부, 이후 왕징웨이
의 난징국민정부 휘하에 있었다. 왕징웨이 국민정부 시기 주조선영사관 자료는 난징에 있는 제2역사당안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연구자에게 개방이 불허된 지 오래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영사관 동향은 주로 일본 측 자료에 의거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다. 중국 측 자료는 희귀하다. 따라서 당시 영사관원으로 근무했던 왕용진의 기록은 의미가 있다. 앞서 잠시 언급한 양사오취안은 중일전쟁 이후 주조선영사관원으로 원산부영사관 주사를 거쳐 진남포판사처 수습영사를 지냈다. 양사오취안의 회고록은 분량이 적지만 주조선영사관이 ‘위정권’(僞政權) 곧 친일 정권에 참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楊紹權. 2000). 이 두 회고록은 중일전쟁 이후 영

사관원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이은상, 2018, 225; 이정희, 2018, 175).

또한 역사 속의 인간으로서 왕용진의 생애도 예사롭지 않다. 왕용진은 난징국민정부 외교부 근무 경력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꼬리표 때문에 소련과 중국에서 30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였다. 그는 1905년 그러니까 청나라가 멸망되기 몇 년 전에 태어나 중화민국을 거쳐 만주사변이 일어난 직후 난징국민정부 외교부에서 근무하였고, 중일전쟁 직전 식민지 조선에 파견되었다. 일본의 패망으로 소련군에 체포되어 5년 동안 전범수용소에 수용되었고 중국에 인계되어 푸순 감옥에서 7년 동안 수감되었다. 석방된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한국에서 가족을 만나 타이완으로 가겠다는 일념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재수감되었다. 2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뒤 소원이었던 타이완으로 이주하였으나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다시 자녀가 있는 대한민국 인천으로 돌아와 생을 마감하였다.

그가 가족을 만나게 되는 상황도 극적이다. 왕용진은 원산 영사관내에서 소련군에게 체포되면서 가족과 이별하였다. 왕칭더는 1946년 원산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 해 겨우 남하하여 서울에 거주하다가 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하여 정착하였다. 왕용진이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 타이완에는 2명의 자녀와 부인이, 인천에는 2명의 자녀가 살고 있었다. 막내 왕용진은 1975년부터 2014년 퇴임할 때까지 인천화교학교에 재직하였고 퇴임 후에도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생활하고 있다. 남은 가족의 삶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기록했을 리 없을 것이다. 왕용진이 원산에서 체포될 때 왕칭더는 태어나기 전이었다. 태중에 있던 막내 아들 왕칭더가 수소문 끝에 일본을 경유해서 부친에게 편지를 보내고 결국 타이완에서 부친을 처음으로 상봉하게 되었다는 가족사는 어느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이다.

왕용진은 ‘비참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의 회고록은 20세기를 ‘살아낸’ 동아시아 디아스포라의 또 다른 사례로 기억될 터이다. ‘기록의 힘’은 위대하다. 그 기록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연구자의 몫이다.

| 참고문헌 |

- 이은상. 2018, “중화민국 시기 주조선영사관원의 이력과 활동 - 마영발(馬永發)의 사례”, *사충* 94, 고려대 역사연구소.
- 이정희. 2018, “중일전쟁 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 활동과 조선화교 사회의 변동”, *중앙사론* 48, 중앙대 중앙사학연구소.
- 楊紹權. 2000, “駐朝鮮各地領事參加偽政權的經過”,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全國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 編, *文史資料選輯* 142, 北京: 中國文史出版社.